

대행 스님

정작 상대와 나를 위한다면 안으로 불을 켜세요

어떻게 잘 회향을 할 수 있는지

질문 불교에서는 일체 공덕을 회향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회향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시시각각으로 회향을 하는데 회향이 무슨 따로 있나요? 아니, 밥을 먹고 끝나면 회향이요, 똥을 누고 일어나면 회향이요, 말을 하고 끝을 마치면 회향이요, 모든 게 회향 아님이 없어요. 시초가 있고 회향이 있어서, 우리 살림살이 어떤 거 하나도 떠나지 않는 것이 회향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이 이치를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근본을 진짜로만 믿는다면 모든 게 회향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애석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애한테 뜀박질을 해서 천 리를 뛰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애더러 사회에 나가서 벌이해 오라고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어떠한 애로점이 내 앞에 닥쳤는데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가를 수없이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갖다가 주기까지 하면서 일러 드렸는데도 모두들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먹는 거는 자신이 먹어야 되겠죠. 대부분 세 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 오신 분도 있고, 오셔서 좀 희미하게라도 아는 분이 있고, 이해를 완전히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한마음 소식을 얻었다 하는 분도 있고, 그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어린애들이 집에서 노는데 불이 나니까 사탕을 줘서 끌어내려고 "너 장난감 이런 거를 줄 테니까 얼른 나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 어린애들을 건지듯이, 여러분에게서 괴로움과 정말 견디지 못할 문제들을 볼 때 사탕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 괴로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울면 내가 울음이 나오고, 또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은 인연의 줄 없는 줄이 얽혀 가설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언짢아지고 눈물이 나죠? 안 그렇습니까? 남이 울면 덩달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불쌍한 사람을 볼 때는 가슴이 아프고, 그것이 바로 줄 없는 인연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진 비바람이 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요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애석하게도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럽니다, 마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나옵니다.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요.

왜냐하면 좀 믿음을 가지고 간다 하는 사람 앞에 오장육부 속에서 모든 인과로 인해서 모인 중생들이 제가끔들 일어납니다. 과거에 인과를 지은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악의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또 내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몸속에 있는 수십억의 의식들이 좋고 나쁜 거, 자비, 사랑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통솔하면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만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고 깨지고 땅이 솟고 찢어지고, 온통 금방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갖고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커버를 못 할 때 무조건 그냥 그냥 탁! 모든 걸 죽든지 살든지 그냥 놔 버리고 근본 자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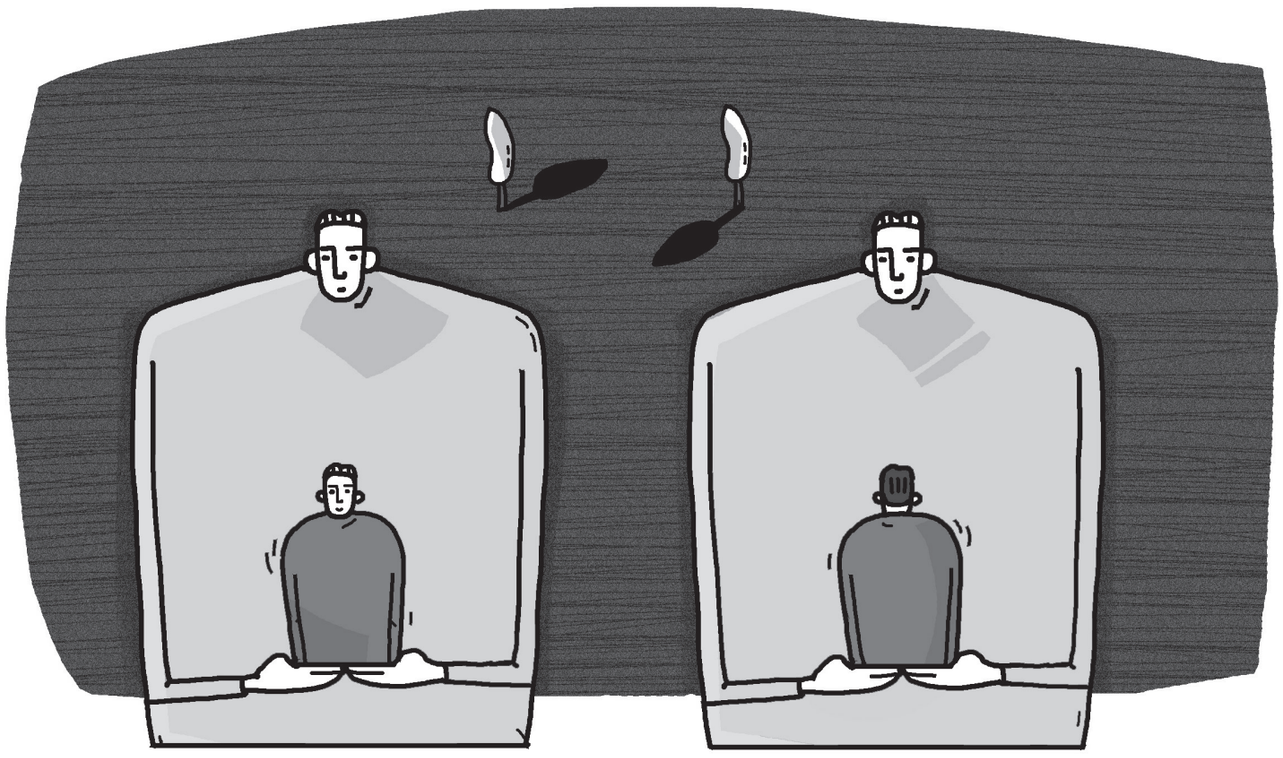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식 마음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질문 자식이 어릴 때는 너무 예쁘기만 했는데 애들이 조금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저의 애간장을 태우네요. 너무 답답하던 차에 유튜브를 통하여 스님의 법문을 접하게 되어 마음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여러분이 아들로 인해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 내 주인공만이, 그 아들의 주인공도 둘이 아닌 까닭에, 내 주인공만이 내 아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믿고 내 근본 자리 주인공에다 맡겨 보세요. 바깥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가정의 우환이나 가난한 거나 아픈 거나, 또는 인과응보로 인해서 오는 거나 유전성으로 오는 거나 영계성으로 오는 거나, 모든 일체를 다 그렇게 해서 용광로에 헌쇠들을 넣듯이 넣는다면 자동적으로 쇠가 생산이 돼서 나가죠.

그렇듯이 우리가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한다면, 새로 생산돼서 다시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위대하든지 위대 안 하든지, 생활 속에서 어려운 사람이든 거지든 부자든 그건 아랑곳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그것도 아랑곳없습니다. 내가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똥 누면서도 자면서도 항상 내가 내 앞에 닥친 거를….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면 누가 일어납니까? 엎드러지는 놈은 누구고 일어나는 놈은 누굽니까? 자기가 엎드러졌으면 자기가 일어나야죠? 결국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나온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다 맡겨라 이겁니다, 기계도 조립한 사람이 고치길 잘 고치듯. 맡겨 놓고 '어, 주인공! 내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내 주인공밖에 고칠 수 없구나. 너 알아서 해.' 하고선 맡겨 놓고 관해 본다. 이거 관한다 하는 건 지켜본다 이겁니다. 지켜보면 그때에 바깥으로 어떠한 문제가 나올 때에 자기가 실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을 똑똑히 들으시고 하신다면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속 썩을 일이 없어요. 자기 주인공에서 모든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건 이 전깃불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갖다 올리면 이 방에도 불이 들어오고 저 방에도 들어오고, 전력이 다 가설이 돼 있으니까 내가 다니면서 스위치 올리면 불 들어오죠? 전력 들어오는 그 과정은 모르지만 불 들어오는 거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력이 들어오는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불이 들어오는 과정은 봤다 이겁니다. 불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니깐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는 건 믿으시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기한테도 영원한 자기의 불성의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악행하는 그 마음도 선행하는 마음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써 '거기에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하고 믿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전력이 보이지 않게 들어오듯이, 내 마음의 참 법성신의 그 뜻이 바로 돌아서 나한테 턱 나타날 때 그 기쁨이란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런 조그마한 걸로부터 나를 실험해 보고, 내 몸으로 실험하고, 내 가정으로 실험하고, 내 사회로 실험하고, 또 어떠한 나라로 실험하고, 이렇게 자기가 한번 던져 보고 자기가 실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밝아집니다. 자기 본래면목을 밝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저 전화기도 있어야 하고 냉장고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렇게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자신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 소립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모른다면 어떻게 한 푼어치라도 건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말만 듣고 그냥 '내 주인공에 놓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행을 못 하신다면 그건 말하나 마나 건성 도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